

“정보화시대의 유통정보시스템 시급하다”

출판영업인협의회 세미나 지상중계

출판영업인협의회(회장 허삼택)는 지난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경기도 파주군 흥원연수원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정보화시대 도래에 따른 출판영업인의 역할을 되새겨본 이번 수련회에는 이기웅 열화당대표가 「정보화시대의 창조적 출판영업」을, 이두영 출협사무국장이 「출판유통시스템 현대화 방향」을, 한문철 변호사가 「마케팅 실무 법률상식」을, 이철지 종로서적대표가 「서적계 위기 그 대책」 등의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수련회에 발표된 논문 중 이기웅씨와 이두영씨의 논문을 발췌 소개한다.

출판영업은 기획의 연장으로 존재해야

이기웅—「92년 출판연감」에 따르면 91년 말 현재 전국의 출판사 수는 6,607개 사로, 10년전에 비해 3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90년보다는 115.8% 늘었다고 한다. 91년 일년동안 모두 2만2,270종, 1억3,461만6,459부의 도서가 문화부에 납본되었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61%가 한달동안 한편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한다. 가구당 연간 책구입비도 1만524원에 불과하고, 공공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장서수가 0.15권이고 보면 우리 국민의 독서실태는 충격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반되는 두 통계—출판사 수와 독서문화—사이엔 출판영업인들이 서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상은 이제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들어서 있으며 출판산업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책이란 일정한 형태적 조건을 갖추고 일정한 목적에 공헌하며 일정한 용도에 이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최근들어 전자책이 종이를 대신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책의 전망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책의 본질적 성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출판은 무엇인가. 출판은 인쇄기술을 사용해서 제작한 책을 특정집단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독자들의 문화적·실제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다. 출판산업이 정보화사회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출판영업인들은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선 외국어 실력을 쌓아야 한다. 국제적인 출판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업계지나 서평지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도서전도 둘러봐야 한다. 국

제 출판계의 정확한 동향파악이 이루어질 때 대단하지도 않은 외국저작물을 마구 수입하는 그릇된 상술이 사라질 것이다.

외국어 습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출판협동조합의 도서일원화 공급사업과 사업협동조합의 출판물유통센터 건립사업 같은 출판계 공동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도서유통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중복배본, 수요예측 불능, 반품비율 증가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이는 매우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일원화공급은 도서유통경로를 ‘출판사→한국출판협동조합→소매서점’으로 일원화시키는 사업이다. 출판물유통센터는 도서 분류·포장·입출하를 자동화시켜 ‘출판사—서점—물류터미널’을 잇는 전산시스템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첨단 도서유통시스템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이 완성되면 저질출판물, 무작정출판물, 해적출판물의 유통이 차단되고 올바른 출판문화가 이룩될 수 있다.

지난 90년에 한국출판연구소와 한양대언론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출판업자의 61.3%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유통현대화를 꼽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금난(62.7%) 인력난(30.1%) 도서훼손(29.4%)이 경영상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는 출판인들 모두 유통현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정보화시대에는 진지한 독자를 타겟으로 삼는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상적 유통 외에 정보·문화유통도 포괄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출판영업인은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의 매개체가 되어야 하며 시간만 하루에 7백부 가량 유입되는 대형서점에 출판물이 적절히 전시되도록 노력하는 영업인이 되어야 한다. 또 저자나 타기업 정보까지도 파악, 기획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즉 출판영업은 기획의 연장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유통시스템의 현대화 급선무

이두영—현재 유통기관은 쾌적한 설비에 대한 욕구 급증, 경제성·효율성이 요구되는 수송, 상적·물적 유통의 분화현상 가속, 유통정보 고도화, 지역간 균형발전 요구, 소비자보호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대·소형서점 공존 필요성, 지역간 편재 문제 시정, 서점의 체질 강화 등 정보화시대에 맞는 체계가 필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출판유



80개사 1백여명의 출판영업인들 모여 치뤘던 수련회 전경.

통시스템은 업무의 효율화와 경영정보 일원화를 추구할 수 있는 체제이어야 한다. 독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 경영전략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제 경영합리화와 설비자동화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출판유통시스템의 전제조건은 ①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것 ②유통·판매업무의 전산화 ③출판사, 서점, 인쇄, 광고, 금융관련기업의 협업체제 이룩 등이다. 이들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체계가 바로 정보네트워크형 출판유통시스템인 것이다.

정보네트워크형 출판유통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ISBN이라는 코드시스템과 POS라고 하는 관리체계이다. ISBN은 도서목록의 표집, 검색, 재고관리, 주문처리 등의 정보화를 도모하며 POS는 매상관리, 수발주, 반품·재고·고객관리 등 유통·판매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고 상품판매 동향을 파악하여 경영과 판매정책을 신속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출판사의 인력난, 인건비·임대료 가중 사이에서 유효유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출판시장 개방시기가 97년 이후로 미루어졌지만 유통시장은 93년에 서적 도매업을, 95년부터는 소매서점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점이 출판기획의 피드백 역할과 경영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유통정보를 창조하고 생산해내는 발신기지로 발전해야 한다.

정보화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은 관련기업 및 관련업종간의 유통정보 통신망을 구축 활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담당

기구로서 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출판사의 ISBN과 서점에 설치된 POS기기를 연결한 출판유통정보통신망은 개별기업 경영과 출판 산업 전체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출판사—서점—창고—운송—은행 등을 네트워크로 엮는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POS시스템이 출판유통 VAN과 결합되고 ISBN을 이용해서 자동발주시스템(EOS)과 자동거래정보교환(EDI)이 실현되면 사무의 간소화, 저렴화, 정확화, 신속화를 도모할 수 있다. 출판유통센터는 이러한 정보처리 능력을 구비, 각 출판사의 영업상의 손실을 줄이고, 부대비용도 크게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출판유통시스템의 정보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출판유통현대화 계획위에 출판·서적상업계와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출판사 서적상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면 POS제도 등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 업계내 코드체계의 통일, 장표류와 업무의 표준화, 편람의 정비, 서지정보의 통일적 관리,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POS·ISBN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동, 출판유통 현대화를 위한 출판·서적상계 협의체 구성 등이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POS제도 도입서점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지원의 강화, 포상제도 도입, 서점 전용 POS기기의 개발 유도,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